

동 심

산을 산이라 하고 물을 물이라 합니다.

몸을 옷으로 감추지도, 드러내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물음표도 많고, 느낌표도 많습니다.

휴과도 즐거이 맨손으로 만납니다.

마른 풀잎의 별을 우러르기도 하지만 청마루 밑같이 낮은 데에도 곧잘 시선이 머물습니다.

마른 풀잎 하나가 기우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웅달샘에 번지는 메아리결 하나도 헛 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때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라는 기대로 가슴이 늘 두근거립니다.

이것을 지나온 세월 속에 읽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은 행복의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구요?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동 심’

- 정채봉님의 샘터 중에서 -

